

16대 국회의원후보 공천에 과학기술계 대표 특별배려 요망

- 과총, 총선앞두고 3당에 건의문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金炳洙) 및 회원단체 일등은 2월10일 '과학기술인의 국회의원 후보공천 특별배려에 대한 건의문' 을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에 제출했다. 그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 의 문 ◆

주지하시다시피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의 변환 등 인류사회문명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국력과 직결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자연히 변화의 주역으로서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을 부하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와같이 필수불가결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창달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데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 아래에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온 국민의 염원인 선진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겨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의 국제화·세계화의 물결 속에 선진국의 수입개방 압력은 물론 보호무역의 장벽과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비롯한 창조적 기술개발 등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

국가발전을 중단없이 이룩하는 길은 오직 '과학기술 혁신' 뿐이라고 믿으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급한 국가정책의 입안·심의·평가 등 각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우리는 이미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시대가 된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5백만 과학기술인들은 우리에게 부하된 책임과 소명을 재삼 통감하고 그동안 축적하여 놓은 능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진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본 건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선처를 양망합니다.

◆ 건 의 요 지 ◆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각당의 국회의원 후보공천에 과학기술인을 다수 공천하여 주시므로써 입법과정 등에서 과학기술계의 전문성과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회의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과총 과학기술자문봉사단(단장 金商周)은 부산·경남지부 주관으로 2월16일 부산대학교에서 '지식정보사회의 특허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동대지부장(부산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양섭 특허청심사2국장의 발표(지식정보사회와 특허)와 박종효 특허청심판관의 발표(특허제도 활용)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관계자 1백80여명이 참석했다.

